

신증후군 환아에서 혈청 25-Hydroxyvitamin D의 변화

경북의대 소아과

고 철 우 · 구 자 훈

신증후군의 재발시 혈청 칼슘이 감소됨은 이미 알려져 있으며, 이는 혈청 알부민의 감소 뿐만 아니라 vitamin D의 감소에 기인한다고 보고되고 있다. 이에 연자는 우리나라 소아에서 신증후군의 경과에 따른 칼슘대사 및 vitamin D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본 조사를 시행하였다.

대상 환아는 1990년 1월부터 12월까지 신증후군으로 입원하였던 23예로 하였으며, 대조군으로는 4~14세의 건강한 소아 10예를 택하였다. 신증후군의 재발시 혈청 총칼슘은 7.9 ± 0.8 mg/dl, remission시 8.5 ± 0.7 로서 대조군의 9.5 ± 0.5 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되어 있었고 ($p < 0.01$), remission 1개월 후에는 9.2 ± 0.8 로 회복되었다. 혈청 이온화 칼슘은 재발시 3.4 ± 0.4 mg/dl로서 대조군의 4.1 ± 0.1 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되어 있었고 ($p < 0.01$), remission후 1개월에는 4.1 ± 0.6 으로 회복되었다. 혈청 25-Hydroxyvitamin D (25-HCC)는 재발시 4.2 ± 2.9 ng/ml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되어 있었으며 ($p < 0.01$), remission시 $8.4 \pm 10.10.8$, remission후 1개월에는 11.8 ± 5.3 으로 회복되었다. 혈청 25-HCC와 혈청 알부민은 $r = 0.80$ 으로 유의한 상관관계에 있었으며 ($p < 0.0001$), 24시간 요중 단백 배설량과는 $r = -0.43$ 으로 유의한 역상관관계에 있었다 ($p < 0.05$). parathyroid hormone은 신증후군의 경과중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. 결론적으로 신증후군의 재발시 나타나는 저칼슘 혈증의 기전으로서는 저알부민혈증 뿐만 아니라 25-HCC의 감소도 알 수 있었다.

Henoch-Schoenlein 자반증 환자의 임상적 관찰

연세의대 소아과

이재승 · 민명구 · 배기수 · 김병길

병리학

정 현 주 · 최 인 준

1978년 7월부터 1989년 9월까지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소아신장학 분야에 입원하였던 Henoch-Schoenlein 자반증 환자 100예를 대상으로 임상관찰을 하고 그 예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. 요소견에 따른 임상적 분류는 N(정상), a(혈뇨), b(혈뇨 및 단백뇨), c(혈뇨 및 신증), d(급성신염 및 단백뇨), e(급성신염 및 신증)로 하였고 신생검에 의한 조직병리 소견은 ISKDC 분류법에 의했으며, 입원당시 및 추적관찰 후의 임상상태는 Medadow and Counahan의 분류법에 의했다. 임상요인들과 추적관찰 후의 상관관계에서 성별과는 Mann-Whitney test, Prednisone 용량과는 Kruskal-Wallis test, 그의 모두는 Spearman rank correlation으로 알아보았다.

성별과는 남아 62예, 여아 38예 이었다. 입원당시의 연령의 분포는 3세에서 15세까지로 평균 연령은 8.1 ± 3.1 년이었고, 6세 미만 26, 6~11세 58, 12세 이상 16예 이었다. 입원 당시의 임상분류는 N 30, a 15, b 38, c 5, d 6, e 6예이었고, 임상상태에 따른 분류는 A 30, B 45, C 22, D 3예이었다. 65예에서 신생검을 실시하였으며 조직병리 소견은 I 30, II 36, III 7, IV 2예이었다. 입원당시의 임상분류와 조직병리 소견과의 상관관계는 $r = 0.358$, $p < 0.05$ 였다. 10예에서 22.4 ± 18.1 개월후에 2차 신생검을 실시하였으며 호전 4, 불변 2, 악화 4예였다. Prednisone 투여는 비투여 33, 1mg/체중 kg 36, 2mg/체중 kg 31예였다. 20.8 ± 30.4 개월간의 추적관찰 후의 임상상태는 A 60, B 33, C 3, D 2, 불명 2예였다.

임상소견의 여러 요인들과 예후와의 상관관계를 보면 성별 $z = -0.903$, $p > 0.05$, 입원당시의 연령 $r = 0.246$, $p < 0.05$, 입원당시의 임상상태 $r = 0.391$, $p < 0.05$, 조

적병리 소견 $r=0.293$, $p<0.05$, Prednisone 투여량 $X^2=0.229$, $p>0.05$ 이었다.

- 31 -

IgA 신병증의 임상적 병리조직학적 고찰

계명의대 내과

박성배 · 정태훈 · 손수호 · 김현철

병리학

박 관 규

1986년 5월부터 1991년 2월까지 계명의대 동산병원에 입원하여 경피성 신생검을 시행하여 IgA 신병증으로 진단된 72예의 임상상과 병리조직학적 분석을 하여 다음과 성적을 얻었다.

1) 대상환자의 평균연령은 27.9세이며, 이 중 215세 ~ 30세가 27예(37.5%)로서 가장 많았다. 성별별로는 남자 32예, 여자 40예이었다.

2) 임상증상으로는 육안적혈뇨가 29예(40.3%)로 가장 많았고, 이 중 반복성혈뇨가 27예(37.5%)로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. 신증후군이 17예(23.6%)이었으며, 무증상성 뇨 이상 16예(22.2%)로써 이 중 현미경적 혈뇨와 단백뇨의 동반이 10예(13.9%) 현미경적 혈뇨 단독 1예(1.4%), 단백뇨 단독 5예(6.9%)이었다. 그의 급성 사구체신염 7예(9.7%), 만성사구체신염 3예(4.2%) 등의 순서였다.

3) 유발인자로서 상기도 감염이 선행된 경우가 19예(26.4%)였고, 11예(15.3%)에서 요통 혹은 배부통을 호소하였다. S-M Kurt Lee 등에 의한 임상적등급은 class B가 70예(97.2%)로서 대부분이 활동성 신질환 상태였다.

4) 점사소견상 24시간 노단백이 1.0g/day 이상은 53예(81.5%)이며 이 중 3.5g/day 이상인 예는 29예(44.6%)였다. 혈청 creatinine이 1.7mg/dl 이상인 예는 5예(7%)이었다. 혈청 IgA는 33예(56.9%)에서 350mg/dl 이상으로 증가되어 있었다. HBsAg 항원 양성자는 11예(15.3%)이었다.

5) S-M Kurt Lee 등의 분류방식에 의한 광학현미경상 병변정도는 Grade III가 24예(33.3%)로 가장 많았고, II 22예(30.6%), IV 15예(20.8%), I 8예(11.1%), V 3예(4.2%) 등의 순서였다.

6) 면역형광현미경상에서 동반된 immunoglobulin 침착은 IgG 9.7%, IgM 43.1%, C3 62.6%, Clq 6.9%, Fibrinogen 59.8%, Kappa 29.2% 및 Lambda 50% 등이었다.

7) 평균 14.2개월간 추적검사를 시행하여 8예(13.1%)에서 신기능의 악화를 보였으며, 광학현미경상 병변의 Grade I 과 II에서는 신기능이 악화된 예가 1예도 없는 반면에 Grade III 2예(12.5%), IV 5예(62.5%) 및 V 1예(100%)에서 신기능의 악화를 보여 조직학적인 Grade가 높을수록 신부전으로의 진행이 유의하게 높았다($p<0.01$).

8) HBsAg이 동반된 IgA 신병증 9예 가운데 4예(44.4%)에서 신기능의 악화를 보인 반면 HBsAg 음성인 IgA 신병증 52예 가운데 4예(7.7%)에서 신기능 악화를 보여 HBsAg 양성군에서 유의하게 높은 빈도의 신기능의 진행을 보였다($p<0.01$).

- 32 -

성인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 관련 사구체 신염의 임상상 및 병리학적 소견

강남병원 내과

김 윤 구

서울의대 내과

양원석 · 이종건 · 한진석

김 성 권 · 이 정 상

병리과

김 용 일

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은 여러종류의 사구체 신염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소아에서의 보고가 대부분이며, 성인에서는 아직 그 임상상 및 병리조직학적 소견을 잘 알려지지 않았다.

이에 연구자들은 1979년부터 1989년까지 서울대학교병원 내과에서 신생검을 실시한 환자중 혈중 HBsAg 양성이며 신장을 침범하는 다른 전신질환의 증거가 없는 사구체신염 환자 179명을 대상으로 임상상 및 병리적 소견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.

1) 대상환자의 남녀 비는 4 : 1이었으며 연령분포는